

제 5163호 2000년 11월 25일 창간

homae.co.kr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음력 4월 12일)

## 6·1 지방선거 12~13일 후보등록…본격 레이스

광주·전남 431명 지역 일꾼 선출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열전 돌입

6·1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2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선 거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11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광주는 시장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69명, 전남은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61명, 기초의원 247명 등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

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유료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



'광주 2022 양궁월드컵 자원봉사자 발대식'

1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2022 양궁월드컵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이용섭 시장이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

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종양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 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도 피해자들 승소

불법 체포·고문당한 시민들 손배…청구 금액 41~58% 배상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현장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다 구금·고문당한 광주시민 5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장한 부장판사)는 11일 이덕호(63)·남승우(62·2019년 사망)·나일성(60)·김용선(61)·김정란(61·여)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5명(숨진

부의 옛 전남도청 재진압 작전에 맞서 도청에서 최후 항쟁을 벌이다가 불잡혀 157일 동안 구금됐다. 나찌는 ‘개미를 물어뜯으라’는 군의 가혹 행위로 피부부리를 앓았다.

김용선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종장로2가에서 군의 진압에 맞서다가 148일 동안 구속됐다. 의자에 묶여 몽둥이로 맞는 등의 고문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기도 했다.

김정란씨도 민주화운동 중인 1980년 5월 26일 군에 불잡혀 37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전후 광범위한 위법 행위(현법·형사

소송법 위반과 공권력 남용)를 했다고 보고,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신군부의 현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고문·기록 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피고(정부) 측은 이들이 옛 광주민 주권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 보상법 16조 2항이 현법에 어긋난다’는 현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스

## 광주 양궁월드컵 자원봉사단 발대

학생·주부 등 112명…경기장 등서 통역·환경관리 등

광주 2022 양궁월드컵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22 양궁월드컵 자원봉사자는 학생과 가정 주부, 어르신, 회사원 등 각 계 각종 112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회기간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 숙박호텔 등에서 외국어 통역, 경기진행, 환경 관리 등 분야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자원봉사단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 대회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

이용섭 시장은 “자원봉사자는 광주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임원, 관람

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광주의 얼굴”이라며 “광주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양궁월드컵대회에는 38개국 381명이 참가하며 예선과 본선 경기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결승경기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여대에서 열린다. /김용범 기자

광주 전남 마약중독 증가 2면

尹정부, 초대 국정원장 지명 3면

휘발유 보다 비싼 경유 4면

자연 Road to Nature, Gurye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구매 문의 ☎ 061)780-8294